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12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3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13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13
III. 경영참고사항	14
1. 사업의 개요.....	14
가. 업계의 현황	14
나. 회사의 현황	24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7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29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85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87
※ 참고사항.....	88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년 02월 21일

회 사 명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대 표 이 사 : 조 용 병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 2가 120)
(전 화) 02-6360-3000
(홈페이지) <http://www.shinhan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류 승 현
(전 화) 02-6360-307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7기 정기)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이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 2가 120번지)
신한은행 20층 대강당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7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7명 선임)

제2-1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화남

제2-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병대

제2-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철

제2-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성량

제2-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경록

제2-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

제2-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만우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선임)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박병대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성량

제4-3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주재성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2	2. 2018년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일괄신고서 제출을 통한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2) 2017년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평가 결과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5 (임시)	2017.12.2 6	1. 이사 아닌 경영진 선임에 관한 사항	퇴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1) 그룹 고유자산 운용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 2)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및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3) 신한리츠운용 부동산투자회사(손자회사) 설립 추진(안) 보고 4) 그룹 경영리더 육성 제도 수립 보고	퇴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주) 본인 심의안건 의결권 제한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1)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회운영 위원회	[2016년 3월 ~ 2017년 3월] *위원장: 한동우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사외이사위원: 이상경, 이성량, 히라카와 유키 * 기타비상무이사위원: 남궁훈	2017.02.08	1.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2.21	1. 2017년도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가결
	2.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3.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2017년 3월 ~ 현재] * 위원장: 조용병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박철, 이만우, 이흔야, 주재성	2017.03.23	1.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2.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가결
		2017.06.27	1.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017.12.26	1. 이사 아닌 경영진 후보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 위험관리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위험관리위원회(舊리스크관리위원회)	[2016년 3월 ~ 2017년 3월] * 위원장: 박철 * 사외이사위원: 박철, 이흔야, 필립 에이브릴 * 기타비상무이사위원: 남궁훈 [2017년 3월 ~ 현재] * 위원장: 주재성	2017.2.20	1. 신한은행 소매SOHO모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가결
			<보고사항> 1) 2016년 4분기 그룹 자기자본비율 2) 2016년 4분기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3) 2016년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

* 사외이사위원: 주재성, 박철, 이훈야, 필립 에이브릴		4) 2016년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5) 2016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6)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7)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8) 그룹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관리 현황 9) 기타 - 그룹 Basel III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결과 10) 기타 - 2017년도 중점관리영역 그룹 익스포저 한도 설정 보고 11) 기타 - 2017년도 그룹 국가별 위험분석 및 익스포저 한도 설정 보고	
	2017.3.23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7.5.17	1. 신한은행 소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가결
		<보고사항> 1) 2017년 1분기 그룹 자기자본비율 2) 2017년 1분기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3) 2017년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4) 2017년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5) 2017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6)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7)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8) 그룹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관리 현황 9) 기타 - 그룹 Basel III 유동성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완료 보고 10) 기타 - 그룹 통합위험분석결과 결과 보고	-
	2017.7.18	1.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설립에 따른 리스크 검토에 관한 사항	통과
	2017.8.17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 발행에 관한 사항	통과
		<보고사항> 1) 2017년 2분기 그룹 자기자본비율 2) 2017년 2분기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3) 2017년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4) 2017년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5) 2017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6)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7)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8) 그룹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관리 현황 9) 기타 - 신한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 10) 기타 - 신한카드 소매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 검증 결과 보고	-
	2017.12.12	1. 2018년도 최소자기자본비율 설정에 관한 사항 2. 2018년도 리스크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가결
		<보고사항> 1) 2017년 3분기 그룹 자기자본비율 2) 2017년 3분기 리스크한도 운용 현황 3) 2017년 자회사 예상손실 대비 대손비용 현황 4) 2017년 중점관리영역 그룹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5) 2017년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운용 현황	-

			6) 자회사 위험관리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 7) 그룹 리스크 모니터링 보고 8) 그룹 계열 및 개별기업 Exposure Limit 관리 현황 9)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10)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결과 보고 11)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정기 적합성 검증 12) 그룹 내부등급법 신용평가모형 정기 적합성 검증 및 RC 사후 검증 13) 2017년 그룹 통합위험상황분석 정기 적합성 검증 결과 보고	
--	--	--	---	--

(3) 보수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보수위원회 (舊보상위원회)	[2016년 3월 ~ 2017년 3월] * 위원장: 박철 * 사외이사위원: 박철, 이상경, 이성량, 이정일	2017.02.08	1. 2016년도 지주 CEO전략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가결
			2. 2017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3. 2017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4. 그룹 경영진 장기보상에 관한 사항	가결
			5. 2017년도 자회사 이사보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가결
	[2017년 3월 ~ 현재]	2017.02.20	1. 2017년도 그룹 KPI 및 경영진 전략과제 설정에 관한 사항	가결
			2. 2016년도 회사/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안)에 관한 사항	가결
			3. 2016년도 보상체계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가결
			4. 2016년도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가결
	[2017년 3월 ~ 현재]	2017.03.23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7년 3월 ~ 현재]	2017.06.27	1. 그룹 경직 경영진 평가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2. 그룹 경영진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	가결	
[2017년 3월 ~ 현재]	2017.08.18	1. 회사 경영진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2. 자회사 경영진 평가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가결	

(4)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회	[2016년 3월 ~ 현재] * 위원장: 이만우 * 사외이사위원: 이만우, 이상경, 이성량	2017.01.20	<보고 및 심의사항> 1) 그룹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
		2017.02.08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에 관한 사항	가결
			2.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가결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6년도 감사업무 추진 실적 보고 2) 2017년도 감사팀 예산 계획 및 2016년도 집행 실적 보고 3)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보고 4) 2017년도 자회사의 자체 감사계획 수립내용 점검결과 보고	-

			5)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평가 체계 보고 6)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보고 7)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8) 그룹 준법감시인 2016년도 활동결과 및 2017년도 활동계획 보고 9) 자회사 경영진 피고발의 件 보고	
		2017.02.20	1. 2017회계연도 그룹 회계감사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6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2016년도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4.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에 관한 사항 5. 2017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 목표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6년도 경영진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보고 2)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보고 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4) 2016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5) 2016년도 외부감사인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6) 2016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보고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17.02.21	1. 제1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3.23	1. 감사위원회 위원장 호선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2.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심의사항> 1)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가결 가결 -
		2017.05.17	1.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심의사항> 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보고 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3) 2016년도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감사 결과 보고 4) 2017년도 1분기 외부감사인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가결 -
		2017.08.17	1. 자회사 등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7년도 상반기 감사업무 추진 실적 보고 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3) 2017년도 상반기 그룹준법감시인 활동 결과 보고 4) 2017년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가결 -
		2017.11.15	1. 자회사 등의 비감사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심의사항> 1)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보고 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3) 2017년도 3분기 외부감사인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가결 -

		2017.12.1 2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7년 그룹 재무보고내부통제 중간평가 결과 보고 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
		2017.12.2 6	1. 2018년도 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가결
			2. 2017년도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가결
			3. 2017년도 감사팀장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가결
		<보고 및 심의사항> 1)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보고 2) 자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3) 2017년도 3분기 외부감사인 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 회	[2016년 3월 ~ 2017년 3월] * 위원장: 이성량 *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 사외이사위원: 이성량, 이만우, 이정일, 이흔야 [2017년 3월 ~ 현재] * 위원장: 박철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박철, 박안순, 이상경, 이흔야	2017.02.0 8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가결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2.2 1	<보고사항> 1) 2016년도 사외이사 평가 실시 결과 보고 2) 2017년 사외이사 선임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관련 운영 프로세스	-
			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3.2 3	<보고사항> 1)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2017.08.1 7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가결		

(6)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회 보추천위원 회	[2016년 3월 ~ 2017년 3월] * 사외이사위원: 고부인, 박철, 이만우, 이상경, 이성량, 이정일, 이흔야, 히라카와유키, 필립 에이브릴 [2017년 3월 ~ 현재] * 사외이사위원: 박철, 이만우, 이상경, 이성량, 이정일.	2017.02.2 1	1. 감사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가결
			2.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3. 감사위원회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이훈야,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박안순, 주재성 ※ 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	---	--	--	--

(7)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지배구조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2016년 3월 ~ 2017년 3월] * 위원장: 이상경 *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 사외이사위원: 이상경, 고부인, 박철, 필립 에이브릴, 히라카와 유키 * 기타비상무이사위원: 남궁훈 [2017년 3월 ~ 현재] * 위원장: 이상경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이상경, 이성량,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이정일	2017.01.04	1. 대표이사 회장후보 추천 관련 후보군 심의 및 향후 절차 등 논의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1.09	1. 대표이사 회장후보 추천 관련 후보군 압축 및 향후 절차 등 논의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1.19	1. 대표이사 회장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2.08	1. 지배구조 관련 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3.23	1.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5.18	1.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룹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평가 및 개발계획(안) 심의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8.18	1.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1)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 관리 현황 등 보고	가결 -

(8)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회책임경 영위원회	[2016년 3월 ~ 2017년 3월] * 위원장: 남궁훈 * 사내이사위원: 한동우 * 사외이사위원: 고부인,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 기타비상무이사위원: 남궁훈 [2017년 3월 ~ 현재] * 위원장: 주재성 * 사내이사위원: 조용병 * 사외이사위원: 주재성, 박안순,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2017.03.23	1.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가결	
		2017.05.17	1. 그룹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심의사항> 1) 그룹 사회책임경영 개요 보고 2) 2016 그룹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보고 3) 2016년 그룹 사회공헌 현황 보고	가결 -	
			2017.12.12	1. 신한금융그룹 『희망사회 프로젝트』 추진(案) <보고 및 심의사항> 1) 2017년 사회책임경영 대외평가 결과 보고 2) 2020 CSR 전략 이행 현황 보고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0	3,500	623	64	-
비상임이사	1		18	15	

※ 인원수: 2017년 12월말 기준, 1인당 평균 지급액: 지급총액/연환산인원수
 주총승인금액: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경제환경변화

(가) 글로벌 경제 전망

2010년대 들어 기업들의 과잉공급능력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의 설비확장 자제 및 M&A를 통한 공급조정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과잉설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제조업의 재고도 상당 수준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조정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다시 설비 및 재고 투자에 나섬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투자가 주도하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설비투자과 더불어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도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유로존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건설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세계교역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IMF 등 주요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각국의 경기부양정책과 고용 호조 및 글로벌 교역 증가에 힘입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회복세, 유가반등에 따른 자원수출국의 경기개선 등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017년 3.6%에서 2018년 3.9%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중에도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금융부문의 취약성, 선진국 통화긴축으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우려 등은 글로벌 경제에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양호한 금융여건 등으로 가계 및 기업 심리가 개선 추세를 지속하는 데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및 인프라 투자 등 재정정책 확대로 2017년에 이어 2018년 중에도 잠재성장률(2% 내외)을 다소 상회하는 2%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고용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상승세 지속에 따른 주택경기 부진 우려 등은 미국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 경제는 생산성 저하 및 일부 취약국의 부채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과 주요국의 정치적 위험 완화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018년까지 2%대 초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경제는 2017년 중 수출호조와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1%대 중반의 회복세가 예상되나, 2018년에는 기업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실질임금 상승이 민간소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성장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는 기업부채 문제 및 부동산 버블, 그림자금융 문제 등 잠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증가와 수출 확대 등으로 6%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지만,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면서 향후 중국의 성장 급락에 대한 우려는 크게 축소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017년 중 국내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주택부문 중심의 건설투

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에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 중 국내 GDP성장률은 1분기 2.9%(전기대비 1.1%)에서 2분기 2.7%(0.6%)로 둔화되었다가, 3분기 중에는 3.8%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전기대비로는 1.5%까지 반등하였으나 4분기 중에는 3.0%로 전기대비 -0.2%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중 국내 경제는 연간 3.1%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처:한국은행]

그러나 2018년에는 지난 몇 년간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투자가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위축되는 데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반도체 및 IT부문의 투자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은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하여 급격한 경기하락을 막는 완충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제는 2010년 들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성장률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회복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2018년 중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확대가 건설 및 설비 투자 둔화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중에도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및 세계교역량 증가세 등으로 수출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미 FTA 재협상 관련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사이클 정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2018년 중 상품수출 증가율은 5% 미만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중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및 가계부채 등 소비회복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수요 기반의 물가상승압력이 여전히 낮은 가운데 2017년 유가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여건은 민간소비 개선 및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이 건설 설비투자 둔화와 상쇄되면서 실업률은 2017년 (3.9%)과 유사한 3.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8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수출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2017년보다는 다소 낮은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2018년 하반기 중에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중 국내 채권시장은 美 연준의 잇단 금리인상 및 양호한 경기회복세에 따른 금통위의 11월 기준금리 인상 단행(1.25% → 1.50%)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 중에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 韓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저성장 기조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면서 시장금리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통위는 美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하반기 성장을 둔화에 대한 우려 및 정부의 미시적 규제대책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연간 1~2회 수준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2018년 중에는 美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제롬 파월 신임 연준 의장 임명에도 불구하고, 연준 부의장 및 이사 등 신규 FOMC위원의 성향에 따라 연준 통화정책의 긴축 속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 중 국내 시장금리는 전년대비 전반적인 상승기조를 나타내나, 美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및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에 따라 채권시장의 단기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중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의 통화긴축 강화 및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 및 KOSPI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 지속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중 통화스왑 연장 및 한국과 캐나다 간 무제한/무기한 통화스왑 체결 소식 등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18년 중에도 국내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따른 달러 강세 제한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美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간(4월, 10월) 관련 美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부각되는 시기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2) 금융산업 동향

(가) 은행업

①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의 업무는 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및 내외국환 업무 등과 같은 고유업무와 보증, 어음인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과 같이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업무, 그리고 신탁업무 등과 같이 타 법령 등에 의해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경영업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국내 일반은행은 2017년에 들어서도 자산건전성 개선세가 지속되고 수익성도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제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 갔습니다.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17년 3분기말 1,53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은 645.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가 증가해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기업대출은 2017년 3분기말 기준 458.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폭이 소폭 확대했습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 노력과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3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69%를 기록해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부실여신 축소 등에 따라 2017년 3분기말 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3.5%p 상승한 91.3%를 나타냈으며,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도 이익잉여금 증가 등에 힘입어 3분기말 기준 16.04%로 전년말 대비 0.27%p 상승했습니다.

수익성도 순이자마진 확대, 이자수익자산 증가 등으로 이자이익이 늘어난 가운데, 신규 부실채권 감소로 대손비용이 줄어들면서 제고되었습니다. 3분기 중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전입전)은 2.1조원으로 전년동기와 동일했으나, 특수은행은 영업외이익 증가 등으로 1.0조원의 순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0.6조원이 증가해 26.4%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③ 경쟁요소

2018년에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 미 금리인상 움직임의 영향, 다양한 생활금융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화의 가속 등으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고객 확보 경쟁은 업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금융에서의 경쟁도 단순한 가격 위주에서 생활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경쟁 구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영역 확대 및 인가단위 개선을 통한 신규 시장진입자의 진출 가속화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쟁구도를 더욱 복잡하고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대표되는 금융정책의 본격 시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은행간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한편, 향후 금리상승 등에 따라 일부 취약 가계 및 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여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수준에 따라 경영성과의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인허가 등 은행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 신용카드업

① 산업의 특성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재화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신용카드사는 상기 신용공여 외에도 회원들에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신용대출 서비스 및 기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건전성, 수익성

2017년 개인카드 이용액은 전년대비 약 11% 증가로 2016년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업계의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적인 수익성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에는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부 수혜도 예상되지만,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진입 등에 따른 민간소비심리 약화로 카드 이용액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에 따른 추가 인하 압박,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강화 등으로 수익성 또한 약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 상승시 취약한 차주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③ 경쟁요소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 비중이 전세계 1위인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의 특성상 상품 서비스의 차별화도 쉽지 않아 신용카드회사들은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절벽의 도래로 고객기반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카드사·인터넷전문은

행·P2P업체 등의 본격적 대두로 업계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다. 따라서 격변하는 영업 환경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외형 확대 억제와 서민금융 수수료 인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을 장려하는 정책은 강화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금융투자업

①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금의 수요자(기업, 정부)가 자금의 공급자(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직접금융 방식의 금융산업입니다.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투자자의 증권 매매를 수행하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금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자기매매(Dealing), 기타 부수/경영 업무(투자자문, 일임, 신탁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16년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미국 금리 인상 및 美 대선 이후 불확실성 우려 확대에 따른 채권 금리의 상승세 전환으로 증권업계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들어서는 기업 실적 개선과 증시 주변 유동자금 확대에 따라 지난 11월초 KOSPI 지수가 2,550pt를 돌파하였으며, 아울러 글로벌 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증권업계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종 ROE 2016회계연도 4.6% ⇒ 2017년 7~8% 예상)
[자료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한편 중장기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강화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의 자금이동(Money Move)이 진행되면서 고객 자산관리(WM) 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초대형IB 육성 및 모험자본 역할 강화 정책 방향에 따라 자본을 활용한IB 부문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전통적으로 금융투자업은 비슷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화 가능 요소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저성장·저금리 고착화/ 디지털화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등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2017년6월말 현재 54개 업체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작년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 KB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등 대형사M&A가 완료되면서 회사별 전략방향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계 증권사의 경우 후발 증권사가WM/CIB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은행/금융투자 협력모델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거래소 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IB 육성에 따라 규모(대형, 중소형)에 따른 회사별 사업모델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금융투자업자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생명보험업

① 산업의 특성

생명보험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생존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입니다. 보험상품은 여러 기준으로 나뉘지는데 보험사고에 따라서는 크게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하고 가입목적에 의해서는 저축성보험,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수익은 위험률차익(실제위험률 < 예정위험률), 이자율차익(실제수익률 > 예정이자율), 사업비차익(실제사업비 < 예정사업비)의 3가지 이원을 통해 창출됩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18년 생명보험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성장율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던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수요 감소 등으로 2.8% 성장이 예상되며 저축성보험은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판매 부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3%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차 역마진으로 수익성은 다소 정체 상태에 있으나 최근 금리가 상승 전환되면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전망됩니다. [자료 출처: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

③ 경쟁요소

생명보험업은 최근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외형 성장세는 답보하고 있지만 신계약가치 제고 등 내재 가치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성 중심 사업구조 재편으로 생보업계의 장기 수익 기반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IFRS17, 자본규제 강화 등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라 보험 본연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 기반 강화와 자본 적정성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보험법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법 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규칙, 보험 계약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 자산운용업

①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과 자산(부동산 등)을 투자자(보험사, 연기금, 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진 투자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자산운용사의 총 수탁고(AUM)는 2017년 9월말 사상 최초로 966조 원을 돌파하였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성숙한 상황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2017년 자산운용업계는 전체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모시장은 전년 대비 115.6%로 순자산총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 공모시장의 순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102.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수탁고의 증가 및 주식/대체투자 등 상대적으로 운용 보수율 높은 펀드유형의 증가에 따라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경쟁요소

자산운용업은 경기 변동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산업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산업 내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④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용카드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 업종으로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취급품목이 다양하고 대상 고객범위가 넓어 틈새시장 발굴 및 고객 확보가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업권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오토론 및 중금리 대출상품 취급이 확대되고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 대출 시장 영역이 커지는 등 타 금융업권과의 사업영역 상충에 따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 확대,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기업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최근 국내 경기상황 및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은 최고금리 인하 등 정책변화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경쟁자들의 출현 등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걸쳐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대고객 영업활동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IT 콘텐츠 발굴 및 디지털 신기술 개발 등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CT의 발달과 규제 완화 등으로 핀테크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ICT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의 ICT 관련 투자와 핀테크 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CT/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CT 발달에 따라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산업의 ICT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과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기관투자자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 산출, 펀드 성과 측정, 트레이딩 시스템 제공, 법정 보고서 제출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현재 총 8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사무관리 자산의 전체 규모는 2017년 9월말 기준 일반펀드(공모/사모펀드) 508조원, 일임펀드(기관투자자) 448조원입니다. 사무관리 자산의 규모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흐름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주식 등 증권형 펀드, 채권, MMF 등 단기 유동성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펀드의 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업계의 수익성은 펀드시장 전반의 보수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정체하는 추세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REITs) 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대체 투자자산 시장 확대 및 상장지수펀드(ETF) 성장 등에 따라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 채권추심업

신용정보업은 부실채권을 회수/관리하는 '채권추심', 금융기관 등의 요청을 받아 거래당사자의 신용정보를 조사/제공하는 '신용조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을 제공하는 '신용조회'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신용정보업(신용조회회사 제외)의 산업규모는 지난 수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업종인 채권추심업무는 지속적인 매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IFRS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확대, 공공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확대, 개인정보 및 채무자 보호 정책 강화, 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추심수수료율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추심환경 악화에 따라 비추심(경업, 신용조사 등) 사업부문에 대한 시장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 사모투자업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투자자를 사모로만 모집하는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004년 말 국내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2010년말 148개에서 2016년 6월말 342개로 늘어났으며, 투자약정액도 2010년말 약 27조원에서 2016년 6월말 기준 약 60조원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PEF의 투자약정액이 증가하면서 투자형태에 있어서도 대규모 기업인수(Buy-out)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영업권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추가 등록을 통하여 부동산, Infrastructure, Corporate Credit, Global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부동산자산관리업(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 발굴, 투자자 유치, 부동산 매입, 임차인 유치, 시설관리, 부동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시장은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27개 자산관리회사(AMC)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한금융지주 사업비전 및 경영방침

신한금융그룹은 2001년 신한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은행과 비은행간의 균형있는 성장, ▲신성장동력 발굴과 사업모델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글로벌 수준의 역량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World Class Financial Group으로 도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룹 중기 지향점을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0 SMART Project'를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Project 추진 원년으로서 그룹 사업부문 확장(GIB/글로벌/WM 등), 자회사 신규 설립(신한리츠운용), CDO협의회 신설 등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 글로벌, 디지털 분야에서의 신성장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은 2020 SMART Project의 방향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차원 높은 사고'와 '실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슬로건을 '더 높은 視線, 創導하는 신한'으로 설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의 방법론으로서 'S.A.Q(Speed, Agility, Quickness)'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한만의 차별적인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미래 성장 전략 다각화

그룹의 Organic성장과 Inorganic성장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GIB/WM/신탁/부동산 등 그룹 전략 사업라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은행/글로벌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자산/고유자산 운용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수익성/성장성 관점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고 비용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2. Global 성과 창출 가시화

Global 진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은행 해외법인은 핵심시장 위주로 대형화 및 수익성 강화를 추진하고, 비은행은 업권별 사업모델의 지속 성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별로 현지특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3. 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

Value-Chain 전 영역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채널 혁신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특화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 프로세스를 효율화/자동화 하겠습니다. 시장내 파괴적인 디지털 사업모델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협업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그룹 디지털 플랫폼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4. 시대에 맞는 신한DNA 발현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를 그룹 내부 조직문화 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 내부에서는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겠으며, 경영진 등 리더계층 주도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열정과 몰입 강화를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사회적 금융 관점에서 그룹이 추진하고 있

는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성공적 이행하여 상생의 선순환을 구현하겠습니다.

5. 인재 포트폴리오 혁신

그룹의 미래성장을 책임질 경영리더 및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룹 경영리더상에 근거하여 미래 리더를 선발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그룹 내부인재 육성 및 외부전문인력 확보를 병행하는 한편, 기존에 회사별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인재 육성제도를 자본시장, 자산관리, 글로벌, 디지털 등 비즈니스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 One Shinhan 실행력 제고

고객 중심의 One Stop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One Firm관점의 운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회사 및 사업부문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관점의 One Portal 체계 구축 및 그룹 융복합 One Solution을 개발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그룹 One Shinhan 협의회,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겸직/위수탁을 활용한 그룹사 협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7.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 확장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의 깊이와 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VUCA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그룹 미래성장 분야에서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적인 금리, 유동성, 신용리스크 외에도 고객성향, 시장트렌드, 기술변화 등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체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7년 연결기준으로 2조 9,177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그룹 이자이익 증가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도 2조 7,748억원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적정 대출 성장과 마진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신한은행의 수수료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 처분익 감소와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증가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그룹사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은 2017년 당기순이익 1조 7,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으나 비은행부문에서 신한카드가 9,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하였고, 신한금융투자는 2,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83.6% 증가하였으며 신한생명 1,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1조 3,710억원으로 그룹 실적의 약 44%(연결조정 등 감안 전 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차별적 강점인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의 강점이 지속되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내 용	계열회사	
은행업 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용카드업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카드, 신한은행	
금융투자업 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금융투자	
생명보험업 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한생명보험	
기타 부문	자산운용업 부문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신한BNPP자산운용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시설대여 및 렌탈업무	신한캐피탈
	저축은행업 부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신한저축은행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금융IT서비스 업무	신한데이터시스템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신한아이타스
	채권추심업 부문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에 따른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업무	신한신용정보
	사모투자업 부문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신한대체투자운용
부동산자산관리업 부문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신한리츠운용	

(2)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당사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있으며, 사업포트폴리오와 계열회사 구조가 상이하고 기타 금융업과의 관계 등 특수성에 따라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상기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2) 금융산업 동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17년 10월 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하여 금융지주회사 최초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REITs AMC)인 '신한리츠운용'을 설립하였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리츠시장은 최근 대체투자 수요 증가 및 리츠 관련 정부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조직도(2017년말 기준)



※ 사업의 개요에 기재된 내용은 민간 경제연구소 및 국가기관 발표자료 등을 기초로 당사에서 분석한 예측자료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주)신한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이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 2가 120번지)
신한은행 20층 강당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7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7명 선임)

- 제2-1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화남
- 제2-2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병대
- 제2-3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박철
- 제2-4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성량
- 제2-5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경록
- 제2-6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필립 에이브릴
- 제2-7호 의안 : 이사후보(사외이사) 히라카와 유키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만우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선임)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박병대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이성량
- 제4-3호 의안 : 감사위원후보 주재성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 2)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3) 자회사등과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 및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말 현재 (주)신한은행, 신한카드(주), 신한금융투자(주), 신한생명보험(주), 신한BNPP자산운용(주)등 14개의 자회사 및 25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영업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7년 연결기준으로 2조 9,177억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룹 당기순이익은 그룹 이자이익 증가와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도 2조 7,748억원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그룹 이자이익은 주요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적정 대출 성장과 마진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신한은행의 수수료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 처분익 감소와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증가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그룹사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은 2017년 당기순이익 1조 7,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으나 비은행부문에서 신한카드가 9,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하였고, 신한금융투자는 2,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83.6% 증가하였으며 신한생명은 1,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1조 3,710억원으로 그룹 실적의 약 44%(연결조정 등 감안 전 기준)를 차지하였으며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차별적 강점인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의 강점이 지속되었습니다.

[별도기준 영업현황]

당사는 2017년 중 자회사로부터 2016년에 대한 결산배당으로 9,301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신한 브랜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는 신한 브랜드 사용자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2017년 중에는 467억원의 브랜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7(당)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7(당) 기말	제 16(전) 기말
자 산		
I. 현금 및 예치금	22,668,598	19,181,165
II. 단기매매금융자산	28,464,296	26,695,953
I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3,579,057	3,416,102
IV. 파생상품자산	3,400,178	3,002,859
V. 대출채권	275,565,766	259,010,575
VI. 매도가능금융자산	42,116,937	37,662,691
VII. 만기보유금융자산	24,990,680	19,805,084
VIII. 유형자산	3,021,772	3,145,613
IX. 무형자산	4,271,969	4,226,512
X.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631,294	353,600
XI. 당기법인세자산	25,015	12,587
XII. 이연법인세자산	592,283	641,061
XIII. 투자부동산	418,303	353,175
XIV. 기타자산	16,551,958	18,168,408
XV. 매각예정자산	7,550	4,939
자산 총계	426,305,656	395,680,324
부 채		
I. 예수부채	249,419,224	235,137,958
II. 단기매매금융부채	1,848,490	1,976,760
III.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8,297,609	9,233,642
IV. 파생상품부채	3,487,661	3,528,244
V. 차입부채	27,586,610	25,294,241
VI. 사채	51,340,821	44,326,785
VII. 확정급여부채	7,144	130,879
VIII. 총당부채	428,958	728,888
IX. 당기법인세부채	348,830	272,728
X. 이연법인세부채	9,712	10,638
XI. 보험계약부채	24,515,288	22,377,434
XII. 기타부채	25,312,773	20,917,147
부채 총계	392,603,120	363,935,344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2,819,139	31,109,698
(1) 자본금	2,645,053	2,645,053
(2) 신종자본증권	423,921	498,316

(3) 자본잉여금	9,887,335	9,887,335
(4) 자본조정	(398,035)	(458,461)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29,734)	(102,583)
(6) 이익잉여금	20,790,599	18,640,038
II. 비지배지분	883,397	635,282
자본 총계	33,702,536	31,744,980
부채와 자본 총계	426,305,656	395,680,324

2)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I. 영업이익		3,828,675		3,108,642
(1) 순이자손익		7,842,953		7,205,366
1. 이자수익	11,798,654		11,236,302	
2. 이자비용	(3,955,701)		(4,030,936)	
(2) 순수수료손익		1,710,954		1,565,539
1. 수수료수익	4,044,955		3,803,596	
2. 수수료비용	(2,334,001)		(2,238,057)	
(3) 순보험손익		(460,039)		(418,504)
1. 보험수익	4,599,808		4,586,098	
2. 보험비용	(5,059,847)		(5,004,602)	
(4) 배당수익		257,306		281,623
(5)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963,223		369,510
(6) 외환거래손익		364,006		461,671
(7)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1,059,826)		(501,955)
(8)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499,187		647,541
(9) 금융상품자산손상차손		(1,014,899)		(1,195,663)
1. 대손상각비	(816,600)		(1,107,633)	
2. 기타금융상품손상차손	(198,299)		(88,030)	
(10) 일반관리비		(4,811,198)		(4,508,575)
(11) 기타영업손익		(462,992)		(797,911)
II.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20,393		9,995
III. 기타영업외손익		(52,811)		51,835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96,257		3,170,472
V. 법인세비용		848,133		345,553
VI. 당기순이익		2,948,124		2,824,919

Ⅶ. 기타포괄손익		(429,114)		(409,15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533,486)		(424,455)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23,127)		(433,657)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22,813)		2,691	
(3) 해외사업환산손익	(194,172)		12,103	
(4) 현금흐름위험회피	15,904		(1,262)	
(5) 특별계정포괄손익	(9,278)		(4,33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04,372		15,305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03,525		15,307	
(2)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847		(2)	
Ⅷ. 총포괄이익		2,519,010		2,415,769
Ⅸ. 당기순이익의 귀속		2,948,124		2,824,919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917,735		2,774,778	
(2) 비지배지분	30,389		50,141	
Ⅹ. 총포괄이익의 귀속		2,519,010		2,415,769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490,170		2,367,062	
(2) 비지배지분	28,840		48,707	
Ⅺ.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6,116원		5,736원

3)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7(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비지배 지분	총계
1. 2016년 1월 1일 (전기초)	2,645,053	736,898	9,887,335	(423,536)	304,771	17,689,134	973,401	31,813,056
총포괄이익:	-	-	-	-	(407,716)	2,774,778	48,707	2,415,769
(1) 당기순이익	-	-	-	-	-	2,774,778	50,141	2,824,919
(2) 기타포괄손익	-	-	-	-	(407,716)	-	(1,434)	(409,150)
1.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32,530)	-	(1,127)	(433,657)
2.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2,689	-	-	2,689
3.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2,012	-	91	12,103
4.현금흐름위험회피	-	-	-	-	(1,262)	-	-	(1,262)
5.특별계정포괄손익	-	-	-	-	(4,330)	-	-	(4,330)
6.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5,705	-	(398)	15,307
소유주와의 거래 등:	-	(238,582)	-	(34,925)	362	(1,823,874)	(386,826)	(2,483,845)
(1) 연차배당	-	-	-	-	-	(630,978)	-	(630,978)
(2) 신종자본증권 이차	-	-	-	-	-	(36,091)	-	(36,091)
(3) 신종자본증권 상환	-	(238,582)	-	(1,418)	-	-	-	(240,000)

(4) 우선주 상환	-	-	-	-	-	(1,125,906)	-	(1,125,906)
(5)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	(33,507)	362	(30,899)	-	(64,044)
(6)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386,826)	(386,826)
II. 2016년 12월 31일 (전기말)	2,645,053	498,316	9,887,335	(458,461)	(102,583)	18,640,038	635,282	31,744,980
III. 2017년 1월 1일 (당기초)	2,645,053	498,316	9,887,335	(458,461)	(102,583)	18,640,038	635,282	31,744,980
총포괄이익:	-	-	-	-	(427,151)	2,917,321	28,840	2,519,010
(1) 당기순이익	-	-	-	-	-	2,917,321	30,389	2,948,124
(2) 기타포괄손익	-	-	-	-	(427,151)	(414)	(1,549)	(429,114)
1.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322,056)	-	(1,071)	(323,127)
2.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21,552)	(414)	-	(21,966)
3.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93,474)	-	(698)	(194,172)
4.현금흐름위험회피	-	-	-	-	15,904	-	-	15,904
5.특별계정포괄손익	-	-	-	-	(9,278)	-	-	(9,278)
6.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03,305	-	220	103,525
소유주와의 거래 등:	-	(74,395)	-	60,426	-	(766,760)	219,275	(561,454)
(1) 연차배당	-	-	-	-	-	(687,589)	-	(687,589)
(2) 신종자본증권 이자	-	-	-	-	-	(17,678)	-	(17,678)
(3) 신종자본증권 발행	-	224,466	-	-	-	-	-	224,466
(4) 신종자본증권 상환	-	(298,861)	-	(1,139)	-	-	-	(300,000)
(5) 기타연결자본조정의 변동	-	-	-	61,565	-	(61,493)	-	72
(6) 기타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	219,275	219,275
IV. 2017년 12월 31일 (당기말)	2,645,053	423,921	9,887,335	(398,035)	(529,734)	20,790,599	883,397	33,702,536

4)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7(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10,579	3,797,177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96,257	3,170,472
(2) 손익조정사항	(8,100,259)	(7,486,989)
1. 이자수익	(11,798,654)	(11,236,302)
2. 이자비용	3,955,701	4,030,936
3. 배당수익	(257,306)	(281,623)
(3) 현금유출입이없는손익항목	4,106,026	3,965,799
1. 수수료손익	169,640	166,216
2. 보험손익	2,571,094	2,779,710
3.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334,133)	48,363
4. 외환거래손익	(90,562)	(248,844)
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관련손익	231,772	147,813
6.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499,187)	(647,541)
7. 대손상각비	816,600	1,107,633

8. 기타금융상품손상차손	198,299		88,030	
9. 종업원급여	233,718		203,639	
10. 감가상각비및기타상각비	253,344		259,941	
11. 기타영업손익	604,975		70,236	
12. 관계회사 이익에 대한 지분	(20,393)		(9,995)	
13. 기타영업외손익	(29,141)		598	
(4) 자산·부채의증감	(5,079,724)		(2,629,568)	
1. 예치금	(3,092,814)		3,937,005	
2. 단기매매금융상품	(1,689,616)		(4,343,206)	
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1,300,760)		(2,439)	
4. 파생상품	(489,760)		(340,831)	
5. 대출채권	(18,154,807)		(11,351,121)	
6. 기타자산	(25,510)		(4,627,748)	
7. 예수부채	15,103,634		16,771,470	
8. 확정급여채무	(178,113)		(261,550)	
9. 총당부채	(72,048)		(77,514)	
10. 기타부채	4,820,070		(2,333,634)	
(5) 법인세의 납부	(640,017)		(561,604)	
(6) 이자의 수취	11,417,466		11,109,313	
(7) 이자의 지급	(3,655,057)		(4,080,122)	
(8) 배당금의 수취	265,887		309,87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825,187)		(7,593,874)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29,387,966		29,242,921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4,258,308)		(32,844,558)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1,770,889		1,839,275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7,033,275)		(5,277,451)	
5. 유형자산의 처분	11,535		5,793	
6. 유형자산의 취득	(154,885)		(252,084)	
7. 무형자산의 처분	9,282		8,268	
8. 무형자산의 취득	(150,160)		(88,876)	
9.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처분	163,711		67,082	
10. 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의 취득	(380,069)		(145,119)	
11. 투자부동산의 처분	4,869		22,900	
12. 투자부동산의 취득	(2,125)		(176,204)	
1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10,466		2,213	
14. 기타자산의 증감	(263,070)		48,156	
1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85,616		27,265	
16.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27,629)		(69,175)	
17. 사업결합에 따른 순현금흐름	-		(4,28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364,306		4,844,620
1.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300,000)		(240,000)	

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24,420		-	
3. 차입부채의 순증가	2,083,322		3,389,832	
4. 사채의 발행	20,007,028		15,916,866	
5. 사채의 상환	(12,222,745)		(11,988,965)	
6. 기타부채의 증감	4,732		(824)	
7. 배당금의 지급	(706,565)		(669,103)	
8.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65,220		15,414	
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509)		(1,486)	
10. 상환우선주의 상환	-		(1,125,906)	
11. 비지배지분의 증감	215,403		(451,208)	
IV.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45,584)		(22,638)
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604,114		1,025,285
VI.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5,632,536		4,607,251
VI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6,236,650		5,632,536

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1,461,721백만원입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는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지배기업은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일자로 지배기업은 미국주식예탁증서(ADS: 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1)	소재지	재무제표 기준월	지분율(%)	
				제17(당)기말	제16(전)기말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대한민국	12월	100	100
"	신한카드	"	"	100	100
"	신한금융투자	"	"	100	100
"	신한생명	"	"	100	100
"	신한캐피탈	"	"	100	100
"	제주은행	"	"	68.9	68.9
"	신한신용정보	"	"	100	100
"	신한대체투자운용(*3)	"	"	100	100
"	신한BNPP자산운용	"	"	65	65
"	SHC매니지먼트	"	"	100	100
"	신한데이타시스템	"	"	100	100
"	신한저축은행	"	"	100	100
"	신한아이타스	"	"	99.8	99.8
"	신한리츠운용(*4)	"	"	100	-
신한은행	신한아주금융유한공사	홍콩	"	99.9	99.9
"	아메리카신한은행	미국	"	100	100
"	유럽신한은행	독일	"	100	100
"	신한크메르은행(*2)	캄보디아	"	97.5	90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카자흐스탄	"	100	100
"	캐나다신한은행	캐나다	"	100	100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중국	"	100	100
"	SBJ은행	일본	"	100	100
"	신한베트남은행	베트남	"	100	100
"	멕시코신한은행	멕시코	"	99.9	99.9
"	신한인도네시아은행(*2)	인도네시아	"	99	98.98
신한카드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카자흐스탄	"	100	100
"	신한인도파이낸스	인도네시아	"	50	50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	100	100
신한금융투자	Shinhan Investment America	미국	"	100	100
"	Shinhan Investment Asia	홍콩	"	100	100
"	SHINHAN SECURITIES VIETNAM CO., LTD	베트남	"	100	100
"	PT Shinhan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	"	99	99
신한BNPP자산운용	Shinhan BNP ASSET MGT HK Ltd.	홍콩	"	100	100

(*1) 신탁,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당기 중 불균등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변동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신한프라이빗에쿼티의 사명이 신한대체투자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당기 중 신규출자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결대상 구조화기업	연결대상 사유
신탁	신한은행(개발신탁) 외 17개	연결실체가 수탁자로서 힘을 보유하며, 수탁재산이 원금 또는 이자약정 금액에 미달하였을 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엠펙씨울촌그린제일차 외 89개	연결실체가 자산인 채권의 조건변경 및 처분 등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 제공이나 후순위사채 매입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구조화금융	SHPE홀딩즈원 유한회사 외 2개	부동산, 선박, 기업인수금융과 같은 구조화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도 발생 등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지고 연결실체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최대 신용공여자로서 단독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연결실체의 신용공여로 인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투자펀드	코에프씨신한프런티어챔프 2010-4 외 73개	연결실체가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조합원) 등으로서 기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실질적으로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연결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에 대해 신용보강의 목적으로 1,481,719백만원의 ABCP매입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부채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주석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아래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카드부문에서는 바젤 II에 기반한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측정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금융자산의 차주 또는 동질적 차주 집합의 특성을 고려한 PD(부도확률), LGD(부도손실률) 및 CCF(신용환산율)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2016년

12월 30일에 바젤 목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의 카드부문에서는 대손충당금 및 미사용한도충당부채의 추정방법을 종전의 경로전이율 분석모형에서 내부등급법 모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이 129,377백만원, 미사용한도 충당부채가 316,69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5)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7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영업부문'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기준에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환율변동효과, 공정가치 변동, 그 밖의 변동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기준에서는 일시적차이의 정의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기준에서는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지분에 대하여도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7에서 기술한 대로 5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보고부문들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구조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최고 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2) 연결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구조화기업

연결실체는 다수의 구조화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화기업이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얻게 되고 이러한 손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3)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는 다음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계약: 약정일의 계약상 조건 및 기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분류
- 우발부채: 현재의무로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우발부채를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보상자산: 보상대상항목과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재취득한 권리: 특별규정에 따라 측정
-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

- 매각예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순공정가치로 측정

또한,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연결실체가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지배지분의 추가취득은 주주간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6) 비파생금융자산

비파생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금융자산 외의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연결실체의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지정이 허용되는 복합계약인 경우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7)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 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최초거래일 손익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인 최초거래일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이연최초거래일 손익은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
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
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대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
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
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
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
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판단되
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
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관
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손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
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 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직접 환입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40년
기타의 유형자산	4년 ~ 5년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개발비	5년
기 타	5년 또는 계약기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40년	정액법

(12) 리스

1) 리스의 분류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 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연결실체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관련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하고있으며,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금융부채에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신종자본증권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이 구분 기준에 따라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되며 지급되는 분배금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조정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없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9)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 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1)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총당부채에 포함되며, 공정가치는당해 금융보증계약의 기간 동안 상각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당해 금융보증계약으로부터 기대되는 지급 금액의 현재가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 보험계약

1)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한 투자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업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책임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동 준비금은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재무상태표일 이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납입될 순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3) 보증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장래 예상되는 순손실액의 상위 30% 평균금액과 보험종류별 · 최저보증별 표준 적립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4) 지급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으로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환급금 또는 배당금에 관한 분쟁(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에 한한다) 또는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보험금 지급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율에 근거하여 추산된 미보고발생손해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에 총당할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산한 계약자배당금에 예정계약소멸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① 금리차보장준비금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된 계약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이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② 위험율차배당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③ 이차배당준비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전기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이차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단,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보험은 금리차보장이율을 가감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이 배당기준에 미달한 경우 전기말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적용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④ 사업비차배당준비금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에 사업비차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⑤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6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해 전기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장기유지특별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⑥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총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계약자지분조정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당해 회계연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구분하고,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부채적정성평가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의 추가적립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재보험자산

연결실체는 출재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재보험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계약조건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보험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미상각신계약비

연결실체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단, 예정미상각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 수익 · 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 수수료 수익

연결실체는 금융용역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부과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을 구성하는 수수료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보증, 담보와 기타 보장약정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 금융부채 발행시 수취된 개설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보증용역수수료 등 일정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특정한 대출약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낮고, 그 대출약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주식 또는 기타증권 매매, 사업양수도의 주선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거래의 협상 또는협상참여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유의적인 행위를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보험료수익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납입방법별로 보험료 회수기일이 도래되어 납입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회수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배당수익은 지분증권의 분류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상 적정한 손익항목으로 표시됩니다.

(24)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에 따라서,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 점수(이하 '포인트')와 수수료 수익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상을 결제 대금 할인 및 사은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배분할 대가는 회수될 포인트에 대하여 제공될 금전적 혜택 등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 중 회수되는 포인트를 위해 제공되는 혜택의 공정가치는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배분할 대가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의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제공될 금전적 혜택 등의 공정가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인식 금액은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총 포인트에서 금전적 대가 등과교환되어 회수된 포인트의 상대적 크기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하여 보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최초 매출 시점에 보상 점수에 배분된 수익으로 인식되지 못한 금액 등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손실부담계약으로 보아 그 초과금액을 총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모법인인 지배회사와 지배회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회사 및 연결집단의 미래 과세소득을 각각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6) 신탁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신탁계정대여금,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타회계계정차(신탁계정미지급금)로 계상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이를 신탁업무운용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7(당)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7(당) 기말	제 16(전) 기말
자 산		
I. 현금 및 예치금	3	42
II. 단기매매금융자산	255,086	195,026
III. 대출채권	1,234,527	934,664
IV. 유형자산	1,669	877
V. 무형자산	5,511	5,659
VI.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25,733,159	25,703,159
VII. 이연법인세자산	3,776	4,307
VIII. 기타자산	406,052	351,873
자산총계	27,639,783	27,195,607
부 채		
I. 차입부채	5,000	5,000
II. 사채	7,003,622	6,583,308
III. 확정급여부채	2,748	4,158
IV. 기타부채	436,335	385,280
부채총계	7,447,705	6,977,746
자 본		
I. 자본금	2,645,053	2,645,053
II. 신종자본증권	423,921	498,316
III. 자본잉여금	9,494,842	9,494,842
IV. 자본조정	(1,139)	(1,418)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10)	(4,901)
VI. 이익잉여금	7,634,011	7,585,969
자본총계	20,192,078	20,217,861
부채와자본총계	27,639,783	27,195,607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7(당) 기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16(전) 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I. 영업이익	755,420	1,470,849

(1) 순이자손익		(151,991)		(160,327)
1.이자수익	27,339		37,192	
2.이자비용	(179,330)		(197,519)	
(2) 순수수수료손익		46,535		46,546
1.수수료수익	46,720		46,713	
2.수수료비용	(185)		(167)	
(3) 배당수익		930,112		1,646,139
(4)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이익		4,697		9,774
(5) 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153)		106
(6) 일반관리비		(73,780)		(71,389)
II. 영업외손익		(79)		(183)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55,341		1,470,666
IV. 법인세비용(수익)		614		416
V. 당기순이익		754,727		1,470,250
VI. 기타포괄손익		291		(4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291		(400)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91		(400)	
VII. 총포괄이익		755,018		1,469,850
VII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554원		2,985원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내 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처분예정일: 2018년 3월 22일		처분확정일: 2017년 3월 23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5,633,341		5,731,13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896,292		5,422,880	
2. 상환우선주의 상환	-		(1,125,906)	
3. 신종자본증권 이자	(17,678)		(36,091)	
4. 당기순이익	754,727		1,470,250	
II. 대손준비금환입액		-		3,191
합계 (I + II)		5,633,341		5,734,324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765,820		838,032
1. 이익준비금	75,473		147,025	
2. 보통주배당금	687,589		687,589	
3. 대손준비금전입액	1,619		-	
4.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2,000	
5. 신종자본증권상환손실	1,139		1,418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867,521		4,896,292
------------------	--	-----------	--	-----------

4)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7(당) 기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16(전) 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I. 2016년 1월 1일 (전기초)	2,645,053	736,898	9,494,842	-	(4,501)	7,908,694	20,780,986
총포괄이익:	-	-	-	-	(400)	1,470,250	1,469,850
(1) 당기순이익	-	-	-	-	-	1,470,250	1,470,250
(2) 기타포괄손익	-	-	-	-	(400)	-	(400)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400)	-	(400)
소유주와의 거래 등:	-	(238,582)	-	(1,418)	-	(1,792,975)	(2,032,975)
(1) 연차배당	-	-	-	-	-	(630,978)	(630,978)
(2) 신종자본증권이자	-	-	-	-	-	(36,091)	(36,091)
(3) 신종자본증권 상환	-	(238,582)	-	(1,418)	-	-	(240,000)
(4) 상환우선주 상환	-	-	-	-	-	(1,125,906)	(1,125,906)
II. 2016년 12월 31일 (전기말)	2,645,053	498,316	9,494,842	(1,418)	(4,901)	7,585,969	20,217,861
III. 2017년 1월 1일 (당기초)	2,645,053	498,316	9,494,842	(1,418)	(4,901)	7,585,969	20,217,861
총포괄이익:	-	-	-	-	291	754,727	755,018
(1) 당기순이익	-	-	-	-	-	754,727	754,727
(2) 기타포괄손익	-	-	-	-	291	-	291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91	-	291
소유주와의 거래 등:	-	(74,395)	-	279	-	(706,685)	(780,801)
(1) 연차배당	-	-	-	-	-	(687,589)	(687,589)
(2) 신종자본증권이자	-	-	-	-	-	(17,678)	(17,678)
(3) 신종자본증권 상환	-	(298,861)	-	(1,139)	-	-	(300,000)
(4) 신종자본증권 발행	-	224,466	-	-	-	-	224,466
(5) 자본조정의 변동	-	-	-	1,418	-	(1,418)	-
IV. 2017년 12월 31일 (당기말)	2,645,053	423,921	9,494,842	(1,139)	(4,610)	7,634,011	20,192,078

5)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7(당) 기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16(전) 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5,186		1,798,037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55,341		1,470,666

(2) 손익조정사항		(778,121)		(1,485,812)
1. 이자수익	(27,339)		(37,192)	
2. 이자비용	179,330		197,519	
3. 배당수익	(930,112)		(1,646,139)	
(3) 현금유출입이없는손익항목		3,736		4,948
1. 단기매매금융상품관련손익	(855)		(488)	
2.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153		(106)	
3. 종업원관련비용	3,956		4,969	
4.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520		498	
5. 영업외손익	(38)		75	
(4) 자산·부채의 증감		(66,340)		320,716
1. 단기매매금융상품	(59,205)		323,059	
2. 기타자산	21		1,538	
3. 확정급여부채	(2,847)		(2,089)	
4. 기타부채	(4,309)		(1,792)	
(5) 이자의 수취		26,368		41,832
(6) 이자의 지급		(176,010)		(200,452)
(7) 배당금의 수취		930,112		1,646,139
(8) 법인세의 환급		10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0,715)		(201,308)
1. 대출채권의 증가	(555,000)		(505,000)	
2. 대출채권의 회수	255,000		805,000	
3. 유형자산의 취득	(1,214)		(456)	
4. 무형자산의 취득	(36)		(1,504)	
5. 무형자산의 처분	132		1,400	
6.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30,000)		(500,000)	
7. 기타자산의 증가	(3,307)		(748)	
8. 기타자산의 감소	3,71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4,510)		(2,097,596)
1.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24,466		-	
2.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300,000)		(240,000)	
3. 상환우선주의 상환	-		(1,125,906)	
4. 차입부채의 증가	5,000		5,000	
5. 차입부채의 상환	(5,000)		(5,000)	
6. 사채의 발행	1,500,000		1,600,000	
7. 사채의 상환	(1,080,000)		(1,660,000)	
8. 사채발행비의 지급	(2,412)		(2,587)	
9. 배당금지급	(706,564)		(669,103)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9)		(500,867)
V.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39		500,906
VI.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9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동년9월 10일에 당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고, 당사는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단기매매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5) 별도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별도재무제표는 2018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 범주별로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5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기타 금융부채에는 차입부채, 사채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0)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신종자본증권

당사가 금융상품의 발행자인 경우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총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총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 비용의 인식

1)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

2) 수수료 수익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는 관련 용역이 제공될 때 일반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모법인인 당사와 당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회사 및 연결집단의 미래 과세소득을 각각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 납부의 주체가 됨에 따라 연결납세기준 미지급법인세 총액을 당사의 부채로 인식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연결법인세 부담세액 개별귀속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상환우선주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 등은 3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2) 재무제표 중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화남	1945-12-07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병대	1957-09-05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박 철	1946-04-27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성량	1955-08-30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경록	1966-05-25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필립 에이브릴	1960-04-27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히라카와 유키	1960-10-21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7)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화남	김해상사(주) 대표이사	○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 김해상사(주)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박병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대법원 대법관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해당사항 없음
박 철	전)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 한국은행 부총재 ○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해당사항 없음
이성량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해당사항 없음
최경록	(주)CYS 대표이사	○ 게이오기주쿠대학교 Information Technology센터 연구원 ○ (주)CYS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필립 에이브릴	BNP Paribas 일본 대표	○ BNP Paribas 증권 일본 현지법인 CEO ○ BNP Paribas 일본 대표	해당사항 없음
히라카와 유키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 히라카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유)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공시를 참고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	------	------------	-----------	-----

이만우	1954-11-22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미 공인회계사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상세 내용은 해당 공시를 참고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병대	1957-09-05	사외이사후보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성량	1955-08-30	사외이사후보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주재성	1956-01-17	사외이사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병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대법원 대법관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해당사항 없음
이성량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해당사항 없음
주재성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김앤장법률사무소와의 법률자문계약 (후보와의 직접관련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2(10)	12(10)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p>35억원 (주1)</p> <p>※ 이와 별도로 2017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을 19,600주 내에서 부여하고, 지급은 2021년에 해당 부여수량 범위 내에서 하되, 부여 및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함</p>	<p>35억원 (주2)</p> <p>※ 이와 별도로 2018년 중 당사 주식을 기초로 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erformance Share)를 18,200주 내에서 부여하고, 향후 4년간의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 영업순이익 및 ROE 목표 달성률에 따라 2022년에 해당 부여수량 범위 내에서 지급규모를 최종 확정하여 지급함</p>

주1) 이와 별도로 2017년 중 과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부여한도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이 지급될 수 있음.

주2) 이와 별도로 2018년 중 과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의 부여한도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가 지급될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